

# 완도, 해양치유·해양바이오산업 경쟁력 높인다

## 신우철 군수 시정연설서 내년 군정 방향·6대 전략 제시 복지·농림·해양·수산·환경 중점...“정책 중심은 군민”

완도군이 내년 해양치유 고도화와 해양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에 군정을 집중한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완도군수는 최근 제333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신 군수는 “민선 6기부터 7기, 8기까지 12년간 백년대계를 떠받칠 주춧돌을 하나 하나 올리는 데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특히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 블루카본 선도는 완도라서 가능한 일이라고

완도 발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개혁해왔다”고 말했다.

신 군수는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토대로 군민의 더 나은 삶과 완도 발전을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했다.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치유산업은 해양치유 지구 지정,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호텔·리조트 건립 위한 민간 투자 촉진 등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되게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등 연구·인증·생산 체계를 갖추고, 기술 개발·기업 지원 등 소프트웨어 분야 실행률도 제고한다.

‘해양치유와 웰니스가 어우러진 독보적인 관광 패러다임을 확립’하고자 국내에서 유일한 ‘치유의 섬’을 조성하며 섬 테마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완도난대수목원 건립은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완도 치유 페이’는 경제 선순환 플랫폼으로 정착시키고, ‘2026 pre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를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 블루카본의 가치를 높이는 ‘글로벌 해양 웰니스 축제의 장’으로 만들 예정 이다.

‘완도자연그대로 농수축산업은 기후 변화 대응과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략들을 세웠다.

‘춤추는 복지 시책으로 행복한 공동체’

를 완성하고자 고령자 복지 주택·청년 공공 임대 주택·국민체육센터 건립,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사업, 여성 친화 도시 정책, 가족센터 운영, 체육시설 확충 등을 빈틈 없이 수행할 구상이다.

신우철 군수는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군민이 있으며, 군정 방향은 오롯이 군민을 향하고 있다”며 “주력 산업은 고도화하고 그 성장이 군민의 삶에 직결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해남군은 SRT 매거진이 매년 국내 최고 여행지를 뽑는 ‘SRT 어워드’에서 4년 연속 대상에 선정됐다. 사진은 한반도의 시작이자 끝을 상징하는 ‘땅끝전망대’ 모습.

## 목포 ‘동본원사’, 역사·문화공간으로 새단장

### ‘목포 100년의 걸음’ 사진전... 근대·현대 변천사 조명

목포 ‘동본원사’ 지하공간이 역사·문화공간으로 새단장됐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오랫동안 창고로 방치됐던 ‘동본원사’ (오거리문화센터) 지하공간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전시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목포시는 지난 10일부터 ‘목포 100년의 걸음’을 주제로 특별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개항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목포의 100년 변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획전으로, 100년 전 목포의 옛 사진 속 장소를 동일한 구도로

현재 재촬영한 작품 17점과 10년 단위로 정리한 목포역 변천사 사진 등이 전시된다.

특히 구 일본영사관을 배경으로 한 사진에서는 100년의 세월을 견뎌온 근대 건축물의 원형 보존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산정동 성당이 웅장한 대성전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주변 가옥들의 변모는 목포 도시 발전의 흐름을 생생하게 담아낸다.

과거 발이었던 양을산과 양당동 일대가 주거지로 바뀐 모습, 외담도 해수욕장과 유달유원지 등 사라진 풍경들

도 함께 소개돼 관람객들의 향수를 자극한다.

전시가 열리는 공간 자체도 눈길을 끈다. 1930년대 초 일본 불교 사찰로 조성된 동본원사 지하는 해방 이후 정광사의 관리를 거쳐 1957년부터 교회로 활용됐으며 2010년 오거리문화센터 개관 이후에는 창고로 사용돼 왔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지하층 천정 및 기둥 보수 등 공간 재생사업을 진행으며, 내부 벽체에는 목포 고유 석재인 ‘목포석(응회암)’의 절감을 그대로 살려 전시 콘텐츠와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 해남, ‘SRT 어워드’ 최고의 여행지 4년 연속 대상

### 한반도 시작·끝 상징하는 땅끝전망대 ‘호평’

해남군은 SRT 매거진이 매년 국내 최고 여행지를 뽑는 ‘SRT 어워드’에서 4년 연속 대상에 선정됐다.

올해 SRT 어워드는 국내 46개 도시를 대상으로, 독자 1만2160명의 설문조사와 여행작가, 여행기자 등 전문가 평가, 에디터 평점, 여행 트렌드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해 심사했다.

군은 한반도의 시작이자 끝을 상징하는 ‘땅끝전망대’가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

다. 땅끝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사자봉 정상에는 햇불 모양의 땅끝전망대가 조성돼 있다.

전망대에서는 북으로 달마산에 이어지는 첩첩산중이 한눈에 들어오고 동으로는 흰 물살을 가로지르며 노화도와 보길도를 오가는 여객선, 드넓게 펼쳐진 양식장 사이를 오가는 어선들의 행렬이 한 폭의 그림처럼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또 멀리 남으로는 흑일도, 백일도, 노화

도, 보길도 등 아련한 서해의 섬과 다도해가 보석같이 반짝인다. 날씨가 좋은 날은 제주도까지 볼 수 있어 이곳이 진정한 땅끝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매년 두차례 볼 수 있는 뱀섬 일출과 아름다운 낙조는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일출과 일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땅끝의 신비감을 한층 더해준다.

해남 땅끝마을에서는 한해의 마지막인 12월 31일부터 새해의 시작인 1월 1일까지 매년 해넘이·해맞이 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27회째를 맞고 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 무안, 공익직불금 268억원 지급 소농직불금 등 1만1542명 대상

무안군이 ‘2025년 공익직불금’ 268억원 지급했다.

11일 무안군에 따르면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68억원을 확보해 1만1542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했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4549명에게 59억원이, 면적직불금은 6993명에게 209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수행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전년 대비 5% 정도 인상된 단가가 적용돼 영농면적과 구간에 따라 1ha당 최저 136만원에서 최대 215만원 까지 차등 지급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비대면 신청을 시작으로 3~5월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 받았으며, 신청자 총 1만1706명에 대해 농업인·농지 요건, 의무교육 이수여부, 농지의 기능·형상 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군은 공익직불금 제도를 통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기반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6월에서 9월 중 잦은 호우, 벼 깨씨무늬병 등 이상기후로 농업 여건이 어려웠다”며 “이번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